

부처님은 성불 후 첫 일생(一齋)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의 지혜와 덕상(德相)을 갖추었건만, 오로지 망상에 집착되어 스스로 체득하지 못한다"고 설했다. 중생이 모두 '본래 부처'임에도 작각에 빠져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본래 부처임을 알 수 있을까? 부처님은 다시 "모든 존재는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여래를 본다"고 이르셨다. 연기법(緣起法)을 이해하는 것이 '본래 부처'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연기법과 무아법(無我法)을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사진)이 알기 쉽게 풀이했다. 2004년 11월부터 5개월 간 월간 <법공양>에 연재했던 법문을 모은 <연기법과 불교의 생활화>에서 스님은 "연기법과 무아의 이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생활 속에 적용시키면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불교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생활속에서 배우는 연기법과 무아법

불교 교리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결코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수히 겪는 일들을 예로 들어 쉬운 말로 그 속에 담긴 참뜻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무아에

대한 스님의 설명을 들어보자. "우리는 늘, 앞집은 대형차를 모는데 우리는 왜 소형차냐? 앞집 아이는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냐며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착각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나'라고 주장하는 이 존재도 연기로 잡힌 것일 뿐, '나'는 본래 없습니다."

연기법과 무아법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스님은 "정견(正見)을 세울 것을 강조한다.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곧 '이기적인 나는 본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서로 돕고 은혜를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일례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 염주를 밖에 걸어두고 가는 사람에게 스님은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을 초월한 것이 염주이므로 분별을 내지 말고 편안하게 볼 일을 보라"고 말한다. 이처럼 사물을 분별하는 사건(那面)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한 참선과 염불, 경전탐구, 봉사활동을 해 나가야 하며 생활과 수행이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본래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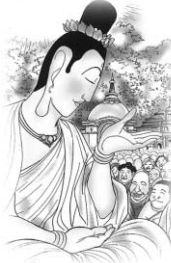
연기법과 불교의 생활화
고우 스님 지음 | 효림 | 4천원

“불법과 SF는 일맥상통”

‘로봇 태권V’ 그린 김형배 화백 불교만화 출간

“현재 판매되고 있는 불교만화들은 그림과 구성이 허술하거나 일반만화를 그대로 옮긴 것이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야기 구성이나 그림의 미적 완성도가 좀 더 높은 불교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펜을 들게 됐습니다.”

1976년 <로봇 태권V>라는 만화로 국내 SF(science fiction, 공상과학) 만화의 지평을 연 김형배(58·사진) 화백, 10여 년간 작품 활동을 중단했던 그가 2002년 다시 펜을 들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화로 엮기 위해서다. 부처님 일대기와 <화엄경> <유마경> <백유경>을 다섯 권의 만화로 옮긴 <마음이 맑아지는 불교 이야기>는 이번에 1~3권이 출간됐고, 조만간 4·5권도 마쳐 선보일 예정이다.



당대 사찰·복식 등 고증
화엄경·유마경·백유경
부처님 일대기 등 만화로

경전을 풀이없이 의식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고스란히 나타내고 싶었다는 김 화백, 산고(産苦)가 컸던 만큼 기쁨과 아쉬움도 큰 것일까? “<화엄경>을 제대로 그리려면 최소한 10권 분량은 되어야겠지만 한 권의 책으로 줄이려 보니 '입법계품'만 담게 됐죠. 하지만 '입법계품' 안에 <화엄경>의 모든 가르침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며 아쉬움을 달래야죠.”

책이 나온 후 주위의 반응은 “SF 만화 그리던 사람이 갑자기 왜 불교 만화를 냈느냐?”로 모아진다. 하지만 그는 절대 ‘갑자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동안 불교에 관심을 갖고 경전을 읽어왔고, 언젠가는 만화로 그려보고 싶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전 우주를 관통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과학적 공상으로 상식을 초월한 세계를 그리는 SF에는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고 말한다. 김 화백은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난 책을 바라보며 “불교가 어렵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불교의 진리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쉽지만, 그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해서 읽다보면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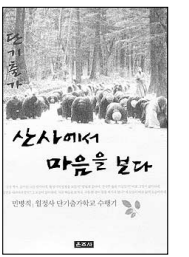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마음이 맑아지는 불교이야기 1, 2, 3
김형배 글·그림
지음과모음 | 각권 9천7백원

월정사 단기출가에서 어떤일이?

단기 출가, 산사에서 마음을 보다
민병직 지음 | 윤우사 | 8천원



모집공고 사흘 만에 신청 마감. 참가 경쟁률 10대 1. 월정사 단기출가 프로그램은 지난해 북적이는 속세를 벗어나고픈 사람들 사이에 열풍을 일으켰다. TV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져 더욱 관심을 고조시킨 단기출가. 과연 한 달 간의 일정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월정사 단기출가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민병직 씨가 쓴 체험기 <단기 출가, 산사에서 마음을 보다>를 펼쳐보자. 문인이자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가 2005년 1월 5일~2월 4일 월정사의 출가생활 경험을 글로 옮겼다.

출가 원서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면접시험적인 갈마, 사발 밥우공양 삼보일배 참선 등 출가자들이 산문(山門) 안에서 치러야 할 일들이 차례로 펼쳐지고, 복잡하기만 해 보이는 의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어려운 불교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해 놓아 불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한달의 일정과 참가자들의 면면을 읽다보면 ‘출가’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사기장 신한군의 산야초 이야기

산도독놈의 산사랑 이야기
신한군 글·사진 | 가이넷 | 9천5백원



통도사 아랫마을에서 도자기를 빚는 사기장 신한군이 25년간 산속에서 살아온 산사나이 ‘솔피’의 산야초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솔피는 자신의 이름인 송산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송사는 전국의 명산을 돌며 약초를 연구하고 있다.

잔가지와 황토, 2천원 어치의 못만을 이용해 지은 ‘솔피굴’에 살고 있는 송씨는 “세상에 진짜 잡초는 없다”고 말한다.

봄의 전령사인 부지깽이나물과 혼하지만 약재로도 손색이 없는 부처손, 여름 더위를 막아준다는 썸바귀나물, 뱀에 물렸을 때 해독제로 사용하는 싹갓나물 등 자연이 품고 있는 산야초들을 자신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잡초’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산야초들을 마구 채취해서는 안 될 터. 송씨는 어린 약초나 나무의 근간인 뿌리, 몸체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나름의 원칙을 세웠다. 자연의 고마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권 출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주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간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중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았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체신(箕城扶新)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초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苦行)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사서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마을로 내려 온 미륵부처



뿔뿔뿔 새겨진 얼굴에 비례가 맞지 않는 신체. 56의 7천만 년 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는 미륵(彌勒)은 어느 부처님과 달리 절대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친구 같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미륵은 저 먼 곳에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부대끼며 위로해준 의지처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마을로 내려 온 미륵부처>는 20여년 간 불교 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지은이와 불교 전문사진작가 이경씨가 2년여에 걸쳐 전국의 미륵을 찾아다니는 결과물이다. 책에는 40미터가 넘는 바위 절벽을 가득 채운 선운사 도솔암 미륵, 미륵도량 범주사의 거대한 미륵대불, 마을 입구나 농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안성의 마을미륵 등 갖가지 모습의 미륵부처님을 친견한 기행문 22편이 실려 있다. 지은이는 “선조들은 좌절하거나 곤경에 처할 때마다 미륵을 찾아 의지하고 그곳에서 희망을 지켰다”며 “오늘 좌절과 회의,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이 미륵을 통해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미륵부처님을 친견한 기행문 22편이 실려 있다. 지은이는 “선조들은 좌절하거나 곤경에 처할 때마다 미륵을 찾아 의지하고 그곳에서 희망을 지켰다”며 “오늘 좌절과 회의,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이 미륵을 통해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고우 큰스님 법어집

연기법과 불교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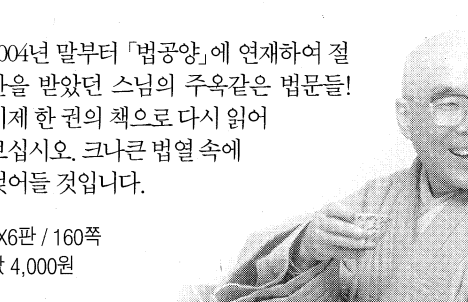
70평생을 오로지 청진만 하였던 고우 큰스님의 첫번째 사자후!

“연기법이란 무엇인가?”
“정견 속에서 불교를 생활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에 대해 스님께서는 매우 알기 쉽게 설하셨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삶을 여는 방법, 오늘을 알고 사랑하기, 참된 자녀교육, 돈에 대한 자세, 신심을 정립하는 법, 복과 지혜를 닦는 법, 정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법 등에 대해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의 첫 단계부터 정견을 기르고, 그 정견을 생활에 적용시켜 나가야 합니다. 생활과 수행이 떨어지지 않는 불교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때, '나'는 불교 속에서 더욱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주위에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4X6판 / 160쪽
값 4,000원

불자 필독 경전 해설서

생활 속의 관음경

우렁 큰스님 / 신국판 / 값 6,000원
괴로움을 해탈시켜주는 관음경! 여러 가지 영험담을 삽입하여 쉽게 풀이한 이 책을 읽으면 신심이 샘솟고, 관음의 가피를 입어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의 본질과 기도성취의 원리를 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

우렁 큰스님 / 신국판 / 값 7,000원
금강경을 우리 생활에 접목시켜 강설 하셨습니다. 한글 번역의 문제가 아님답고,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으며,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명 뜻을 알면 금강경 독송기도도 더욱 깊이를 더해줍니다.

생활 속의 보왕삼매론

김현준 / 값 6,000원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보왕삼매론>을 해설한 이 책은 병고해탈, 고난퇴치,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궁터 쌓는 법, 이익과 부귀, 억울함의 승화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백중기도 · 천도의 범보사용으로 매우 좋은 책

● 영가천도

우렁큰스님 지음 / 4x6판 / 값 4,0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였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독경·사경의 천도, 49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궁금증을 우렁 큰스님의 자세한 범보문으로 풀어드립니다.

●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4,000원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지장보살 본원경 (부록-지장보살예참문)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 그리고 지장염불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보성큰스님 법문집”

마음발을 가꾸는 불자

간절히 남을 따라 찾지 마라
점점 나하고 멀어진다
지금내가 스스로 가나
가는 곳마다 만나는구나

· 천도제 및 백중 기도법을 비롯하여
· 기도성취의 기본원리와 참회법
· 부처님께서 오신 뜻, 불자의 길
· 내가 나를 다듬는 방법
· 주인 노릇하며 사는 법
·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
· 생활 속의 불교수행법
· 업장을 녹이는 공부 등에 대해
큰스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보성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